10.18219/ddmh..111.202009.273

靑山島의 歷史와 구들장논의 經營

金世鎬*

Ⅰ. 머리말
Ⅱ. 청산도의 기록과 거주의 역사
Ⅲ. 왜구의 침략과 청산진의 설치
Ⅳ. 구들장논의 기원과 둔전의 기록
Ⅴ. 맺음말

• 국문초록

靑山島 구들장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업유산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역사적 근거와 경영의 기원 등은 아직 밝혀진 적이 없다. 이 글에서는 문헌 기록을 통해 청산도의 역사를 재검토하고 구들장논 경영의 기원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청산도에 공도정책이 시행되었다가 조선 후기 사람들이 거주하며 구들장논 또한 이 무렵에 시작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청산도는 고려 시대 이래 백성들이 꾸준히 살아왔던 곳으로 이곳의 농경은 최소 지금에서 1,000년 이전부터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시작은 가장 먼저 인구가 유입되고 정착한 곳으로 비정되는 읍리와 당락리(당리) 일대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 후기 靑山鎭이 설치되면서 구들장논은 屯田의 형태로 관리되었고, 둔전의 잉여물은 곧장 세금으로 납부되며 상당한 소출을 생산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산도의 농사 형편은 항상 조정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었으니 이는 청산도 구들장논의 유구한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주제어 : 靑山鎭, 屯田, 최초 조성 시기, 청산도 입도, 空島政策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Ⅰ. 머리말

靑山島는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에 위치한 島嶼이다.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slowcity)로 선정되며 오늘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구들장논이라는 독특한 문화유산이 현존하는데, 이는 바닥에 구들장(온돌)과 같은 돌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어 조성한 다랑논의 일종이다. 제도적 특수성으로 인해 2013년 국가 중요 농업 유산 1호로 지정되었고, 이듬해인 2014년에는 국제 연합 식량 농업 기구(FAO)에서 주관하는 세계 중요 농업 유산(GIAHS)으로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청산도와 구들장논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상황이지만 그 역사적 기원과 유래 등을 조명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 대략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청산도의 역사, 청산도에 설치되었던 靑山鎭의 기록, 지명의 유래 고찰 등에 대한 연구에 국한된 상황이다.[1] 이는 청산도의 문헌기록이 여타 지역에 비해 자세하지 않아 거주민들의 인터뷰를 위주로 연구를 진행해 온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그렇지만 확실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행간의 의미를 밝히면 새로운 차원의 연구는 분명 가능하다.

---

1) 청산도의 역사에 대한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경옥, 「19세기 말엽 청산도진의 재편과 해양방어체제의 변화」, 『지방사와지방문화』 20(2), 역사문화학회, 2017; 「18세기 장한철의 『표해록』을 통해 본 해외체험」, 『역사학연구』 48, 호남사학회, 2012; 「朝鮮後期 靑山島 주민들의 入島와 水軍鎭의 설치」, 『한국도서연구』 19(2), 한국도서학회, 2007; 김정호, 「완도군 청산도의 역사와 지명」, 『한국도서연구』 19(2), 한국도서학회, 2007; 「朝鮮後期 靑山島鎭의 設置와 財政構造」, 『역사학연구』 22, 호남사학회, 2004; 이해준 · 김경옥, 「청산도의 역사문화적 배경」, 『도서문화』 9, 목포대학교, 1991. 한편, 여러 학계에서 구들장논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일부 그 기원을 추정하는 시도가 진행된 적이 있다. 신재열 · 김세호 · 홍영민 · 홍성찬, 「청산도 구들장논의 최초 조성 시기에 관한 연대 분석 결과 및 史料와의 대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6(2), 한국지역지리학회, 2020; 신재열 · 김장수 · 고병천 · 홍영민, 「청산도 구들장논의 수원 및 수리 체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6(2), 한국지역지리학회, 2020; 임근욱,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의 농업관광에 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5(2), 한국사진지리학회, 2015; 김재호, 「청산도 구들장논의 전통 수리 양상과 농경문화 특징」, 『남도민속연구』 29, 남도민속학회, 2014; 조경만, 「청산도의 농업환경과 문화적 적응에 관한 일고찰: 부흥리 일대 수도작의 전통적 방식을 대상으로」, 『도서문화』 9, 도서문화, 1991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청산도의 기록을 통해 역사를 재검토하고 구들장논의 기원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청산도에 공도정책이 시행되었다가 조선 후기 사람들이 거주하며 구들장논 또한 이 무렵에 시작된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그동안의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구들장논의 문헌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향후의 발견 가능성도 다소 요원한 현실이다. 그러나 청산도의 역사를 통해 구들장논이 경영된 기원을 추론하는 작업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청산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청산진과 구들장논의 관련 기록을 분석하여 구들장논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청산도의 기록과 거주의 역사

청산도가 언제부터 청산도로 불렸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사전적 설명에 따르면, 과거에는 청산도와 함께 仙山島 또는 仙源道란 이름으로 일컬어졌다는 설명이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2] '신선'의 의미를 차용한 데에서 그 아름다움을 짐작할 수 있지만, 현전하는 기록을 보면 선원도라 불린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재고의 여지가 있다. 청산도와 선산도의 이름은 다소 혼용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麗末鮮初 선산도가 주를 이루었다면 조선 후기에는 청산도로 고착되는 양상이 드러난다.[3] 이 글에서는 오늘날의 지명에 따라 청산도로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청산도의 기록은 『高麗史』에서 처음 확인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耽津縣은 본래 百濟의 冬音縣으로 新羅 景德王 때 지금 이름으로 고쳐 陽武郡 領縣이 되었다. 고려에는 靈巖으로 이속되었고 뒤에 長興府에 내속되었으며 별호는 鼈山이다. 富仁島・恩波島・碧浪島・仙山島가 있고 또 莞島가 있다."라고 하였다.[4] 선산도는 바로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청산도」, 한국학중앙연구원.

3) 『高麗史』에는 선산도로 기록되지만 조선 전기 관찬지리지에 청산도란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조선의 건국과 함께 지명의 변화가 시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37 全羅道, 「康津縣」).

4) 『高麗史』 권57 志 권11 地理二 全羅道 「長興府」 〈耽津縣〉, "耽津縣本百濟冬音縣, 新羅景德王, 改今名, 爲陽武郡領縣. 高麗, 移屬靈岩, 後來屬. 別號鼈山. 有富仁島・恩波島・碧浪島・仙山島. 又有莞島."

청산도이고 탐진현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이른 시기부터 주목할 만한 도서로 관리된 사실을 보여준다.

청산도는 南海에 속한 여러 도서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해 궁벽한 변방의 섬으로 인식되었다. 다음의 기사는 이러한 특징을 여실히 보여준다.

> 임금께서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리셨다. "朕이 일찍이 日官 崔士謙의 아룀을 듣고 景陵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였는데, 근래에 司天少監 黃忠現 등의 봉사를 보니 사겸의 말대로 보수한 것이 도리어 불길한 것이 되어서, 先靈이 지하에서 편하지 못하리라 한다. 刑部로 하여금 사겸을 가두고 국문한 뒤 선산도로 귀양 보내라." 하였다.[5]

고려 宣宗 1092년(선종 9)에 있었던 일로 崔士謙이란 인물이 선산도에 유배된 기사이다. 최사겸은 知太史局事의 벼슬을 지낸 인물이다. 『고려사』에 따르면 그해 6월 8일 景陵의 지기를 손상시킨 일로 논죄를 당한 뒤 8월 18일 선산도로 유배되었다고 하였다.[6] 여기서 선산도는 바로 지금의 청산도를 가리킨다. 고려 文宗의 능이었던 경릉의 보수작업을 진행하며 풍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죄를 입고 유배된 사실이 나타난다.

최사겸이 청산도에 유배된 정황에서 두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하나는 청산도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예로부터 조정의 관리를 귀양보내는 데에는 무인도를 택하지 않았으니 이미 청산도에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다른 하나는 청산도가 국가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유배된 관리는 귀양을 가게 되면 그곳을 다스리는 수령의 감시를 받게 된다. 결국 최사겸을 청산도로 보냈다는 것은 그를 관리할 만한 관리자가 파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7]

---

5) 『高麗史節要』 권6 宣宗思孝大王[壬申九年], "詔曰: '朕嘗聽日者崔士謙之奏, 修補景陵虛缺, 近覽司天少監黃忠現等封事, 惟此士謙修補, 反爲壓禳, 將使先靈, 不安於玄寢, 其令刑部, 囚士謙, 鞫問, 放于仙山島.'"

6) 『고려사』 世家 권10, 1092년 6월 8일; 8월 18일 기사.

7) 유배객들이 적소에서 보낸 일상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자세하게 소개되었다(이종묵 · 안대회, 『절해고도에 위리안치하라』, 북스코프, 2011 참조).

고려 시대 청산도는 나라의 유배지가 되었지만 선산도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분명 아름다운 섬이었다. 승려 慧日이 지은 시가 전한다.

맑은 새벽 한가로이 궤안에 기대니
눈과 귀가 절로 맑고 고요하구나.
부슬부슬 하늘에는 비가 내리고
쩌렁쩌렁 구름 밖 나무하는 소리네.
산빛 맞으려 대나무 베어 없애고
약 닳이려 멀리서 샘물 끌어온다.
좁은 길에 이끼 낀 지 오래이니
누가 와서 적막한 집 문 두드릴까.
淸晨閑凭几, 耳目自蕭條.
乙乙空中雨, 丁丁雲外樵.
邀山除竹亞, 澆藥引泉遙.
細徑莓苔老, 誰來叩寂廖.[8]

혜일은 고려 시대 正言을 지낸 李穎의 숙부이다. 이영이 완도에 유배되자 따라와서 절을 짓고 기거하다 이후 청산도로 들어가서 살았다고 전한다. 혜일이 청산도에 머물면서 지은 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전하는데, 모두 五言律詩와 七言律詩 두 편으로 위의 시는 전자에 해당한다.[9] 청산도에서 지내는 한가로운 일상을 읊은 것으로 아름다운 정취가 한눈에 들어온다.

혜일의 시는 국가에서 편찬한 지리지에 수록되며 조선 시대 청산도의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일조했다. 예를 들면, 19세기 金允植은 강진으로 유람 가는 黃石淵을 전송하며 시를 지어준 적이 있다. 이때 선산도를 신선 세계와 같지만 아는 사람이 적다고 하며 고려의 승려 혜일이 절을 세우고 살았던 곳이라고 하였다.[10] 조선 시대 전시기에 걸쳐 혜일이 이룬 이미지가 얼마나 지대했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11]

---

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7 全羅道, 「康津縣」.

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7 전라도, 「강진현」: 古跡 선산도, "一山四面鎖雲烟, 深閉松門向暮年. 只有寒風鳴屋角, 更無遊客到菴前. 早眠晏起閑居樂, 渴飮飢飧本分褙. 已得疎慵入不顧, 修行粗了半因緣."

10) 金允植, 『雲養集』 권4, 「送黃生[石淵]客遊康津」, "滄溟萬里限坤維, 洞府仙山世少知[康津海中有仙山島, 高麗僧慧日創寺居之."

청산도는 조선이 건국한 뒤 封山의 하나로 거명되었다.[12] 국가에서 재목으로 사용할 소나무를 재배하는 대상지의 하나로 지목한 것이다. 世宗 대의 기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혜일의 시에 나타난 것처럼 한적한 자연의 풍광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다만 봉산의 관리가 잘 되었는지는 미상이다.[13] 조선 중기 甫吉島에 살았던 尹善道는 吳繼龍이라는 군관이 청산도에서 松板을 구했으나 얻지 못했다는 일을 상소로 진달한 적이 있다.[14] 아무래도 많은 인구에 비해 도성과의 거리가 멀어 봉산지로 적절하게 관리되기에 어려움이 따랐는지 모른다.[15]

청산도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도서였기에 이곳 백성들은 물과 친숙한 삶을 살았다. 이로 인해 여러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고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岣嶁碑의 발견이다.

> 岣嶁碑는 세상에 전하기를 夏禹가 치수한 자취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라 이후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고 구루비는 수천백 리 거리에 떨어져 있다. 멀고도 아득하며 경서에서 문자로 증명된 것이 없어 비석의 소재와 그 실존 여부를 결코 알 수 없다. 수천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몇천백 리의 거리를 지나 푸른 물결의 아득한 사이에서 표류하고 물결치다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이른바 구루비 판본이다. 그 문자가 꿈틀대니 盤誥보다 어렵고 글자 또한 古篆이며 과두도 주문도 아니기에, 우임금이 손수 쓴 것임을 진실로 믿을 만하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九鼎이 泗水에 빠져 의리상 진나라에 더럽혀지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지금의 중국은 禹王의 옛날과 같지 않은데 神物이 이곳으로 왔으니 사수에 빠진 구정과 같은 물건이란 말인가? 아, 기이하도다.[16]

---

11) 이와 같은 사례로, 혜일이 완도에 머물면서 지은 시는 조선 후기까지도 완도를 대표하는 명승으로 회자되었다. (成海應, 『研經齋全集外集』 권63, 「小華古蹟」)

12) 『世宗實錄』 世宗 30년(1448) 8월 27일 1번째 기사.

13) 김경옥(2004)은 松田이 중요하게 관리되고 활용되었다고 하였고 시대에 따라 변화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14) 尹善道, 『孤山遺稿』 권2, 「應旨疏宣文大王七年丙申三月公在海南時」.

15) 완도는 조선 시대 최고의 봉산지 가운데 하나로 엄격하게 관리되었지만 丁若鏞은 실제는 부실하다며 그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다. (丁若鏞, 『經世遺表』 권14, 「摠論」) 청산도의 경우는 완도보다 더욱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 소나무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추정할 만하다.

16) 梁進永, 『晩羲集』 권10, 「書岣嶁碑板後(康津靑山島人, 得此於舟中, 今置之縣司廳)」: 岣嶁碑, 世傳是夏禹治水之蹟, 去夏后數千百載之久, 距岣嶁數千百里之遠, 而遠且久, 經無明文, 碑之所載與其存亡, 斷不可識矣. 經數千百載之久, 經幾千百里之遠, 漂蕩汨沒於滄波浩漾之間, 爲吾人吾得者, 乃所

19세기 梁進永(1788~1860)이 구루비판 뒤에 적은 글이다. 구루비는 과거 하나라 우임금이 홍수를 다스리고 이를 기념해 석벽에 새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실물이 남아 있지 않아 이에 대해 말들이 많았는데 하필 이것이 청산도 백성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한다. 양진영은 이 글의 제목에 각주를 더해, "강진 청산도 백성이 이것(구루비)을 배 안에서 얻었는데 지금 縣司廳에 설치했다."라고 하였다. 아마도 강진현 관아에 설치된 구루비를 보고 이 글을 쓰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발견된 구루비는 오늘날 전하지 않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청산도 주민에 의해 발견된 과정에서 당시 바다와의 친숙한 삶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과연 청산도 백성들은 바다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이는 작은 어업과 관련된 일에서부터 육지를 왕래하는 데까지 일상이 되었던 듯하다. 그렇지만 바다와 함께하는 삶에 꼭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 시대 청산도에 살았던 많은 백성들이 익사하여 국가에서 이들을 위로하는 조처를 베푼 기사가 다수 확인되는데, 이는 청산도 백성들이 겪었을 험난한 삶을 방증한다.[17]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 있었기에 남해안을 왕래하던 배들에게 유용한 피난처가 되기도 했다. 張漢喆이 표류하던 중 정박했던 사건은 이미 널리 알려졌거니와, 李源祐는 1841년(헌종 7) 7월 19일 소안도를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중 강풍을 만나 표류하다 청산도에 어렵게 당도한 사실을 기록하기도 했다.[18] 청산도가 많은 사람들을 살렸으리라 추정할 만한 단서이다.[19] 아울러 바다 한가운데 위치해 항해에 익숙했던 삶은 조선 시대 전시기에 걸쳐 육지와 꾸준히 왕래하는 소통의 기반이 되었다.

謂岣嶁碑板本也. 其文佶屈, 難於盤誥, 字亦古篆, 非蝌非籀, 則禹之手書, 信可徵也. 古人有言曰: "九鼎淪泗, 義不汚秦." 今之中原, 非禹之舊, 而神物之來此, 得無與鼎之淪泗同歟? 吁可異也.

17) 『日省錄』 정조 21년(1797) 4월 25일 14번째 기사; 『承政院日記』 고종 11년(1874) 11월 9일 4번째 기사; 고종 16년(1879) 2월 17일 11번째 기사 등 참조.

18) 李源祐, 『浦上世稿』 1841년 7월 19일: 自安島發船, 遇風漂盪, 經二晝夜於海中, 艱得泊船於海南靑山島一宿.

19) 제주도로 가던 배들이 풍랑을 만나 청산도에 정박하는 일이 종종 확인된다. 이로 인해 청산도는 내륙보다 제주도와 더 가까운 섬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청산도에 근무한 이들이 제주도의 사정에 밝았다는 기록도 전한다(『승정원일기』 고종 21년(1884) 11월 23일 17번째 기사).

Ⅲ. 왜구의 침략과 청산진의 설치

청산도는 고려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아름다운 섬이었지만 현전하는 고려 시대 대부분의 기록은 왜구의 침략과 청산진의 기록으로 점철된다. 19세기 金正浩는 『大東地志』에서 청산진에 별장을 설치했다는 짤막한 설명을 언급한 적이 있다.[20] 이는 청산도가 지닌 역사적 특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조선 전기 왜구는 잦은 침탈을 일삼았고 이러한 역사는 청산진이 건립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청산진의 설치는 구들장논의 경영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기에 별도의 장절을 할애해 청산도의 또 다른 면모를 파악하기로 한다.

여말선초는 왜구의 침략이 극심했던 시기이다. 이에 조선에서는 왜구를 방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청산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1409년(태종 9) 왜구가 침입하여 烽卒들이 사로잡혔다가 도망쳐 나왔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21] 봉졸은 봉수대를 지키던 군사를 말하니 적어도 어느 정도의 방어시설이 있었다는 것이요, 왜구가 침입해 이들을 붙잡았다는 데에서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이었음을 예상하게 한다. 이러한 왜구의 침략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여러 사건이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成宗 대에 일어난 사건은 그 피해 규모가 자세하다.

> 全羅道兵馬節度使 卞宗仁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倭船 몇 척이 達梁島・靑山島에 이르러 商船을 겁략하고, 綿布 50필, 米穀 30여 석을 약탈하였으며, 세 사람을 죽이고 일곱 사람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22]

성종 대에 왜구가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다. 達梁島와 청산도의 상선을 약탈하고 살인까지 자행했던 만행을 볼 수 있다. 절도사의 보고가 이루어질 만큼의 중요한

---

20) 金正浩, 『大東地志』 鎭堡, 「靑山鎭」. 이는 시대적으로 청산진의 위상 변화를 보여준다(김경옥, 「19세기 말엽 靑山島鎭의 재편과 해양방어체제의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20권 2호, 역사문화학회, 2017 참조).

21) 『太宗實錄』 太宗 9년(1409) 8월 4일 1번째 기사: "倭寇全羅道海珍仙山島, 烽卒四人被擄, 旣而逃來." 왜구가 전라도 海珍의 선산도에 침입했다는 기사로 해진은 지금의 해남을 가리킨다.

22) 『成宗實錄』 成宗 14년(1483) 2월 29일 1번째 기사: 全羅道兵馬節度使卞宗仁馳啓: "倭船數隻, 至達梁・靑山島, 刦掠商船, 奪綿布五十匹・米穀三十餘碩, 殺三人, 傷七人."

사안으로 대두된 모습이다.

실제 청산도 일대에 출몰하는 왜구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성종 대에는 청산도의 水賊이 기승을 부리면서 왜구와 함께 문제를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조사를 시행하고 이곳의 방비를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했다.[23] 中宗 대의 기록은 당시 왜적의 문제가 청산도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왜적의 배가 청산도를 기점으로 삼아 인근의 어선을 약탈한다고 하였다. 조정에서는 군사를 풀어 소탕 작전을 계획했는데 이후 全羅右道水使 李夢麟이 몸소 왜적을 붙잡고 이에 대한 일을 상소하자 鄭光弼은 이몽린에게 상을 내릴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24] 그러나 왜적과 대적한 과정에는 항상 승리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伏兵將 李趕이란 자는 근무 태만으로 처벌을 받기도 했으니 청산도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던 것이다.[25]

이러한 청산도 왜구 문제는 壬辰倭亂을 기점으로 변화한다. 다음의 기록을 통해 일련의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 陳璘의 원서: "제가 밤에 천문을 보고 낮에 인사를 살펴보니 동방의 將星이 장차 병들었습니다. 공의 화가 멀지 않았음을 공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어찌 武侯(諸葛亮)의 禳法을 쓰지 않으십니까?"
>
> "저는 충성이 무후에 미치지 못하고 덕도 무후에 미치지 못하며 재주도 무후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이 모두 무후에게 미치지 못하니 비록 무후의 방법을 쓰더라도 하늘이 어찌 응해주겠습니까!"[26]

임진왜란 당시 李舜臣(1545~1598)이 명나라 도독 陳璘과 주고받은 편지의 일부이다. 이순신의 문집에 기록된 내용을 전재하였다. 진린이 먼저 편지를 보내 이순신의 안위를 걱정하자 이순신이 답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순신 사후 산실된 글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상의 내용을 찾아 전재한 듯하다. 이 편지는 청산도에 세워져

---

23) 『성종실록』 성종 21년(1490) 12월 13일 3번째 기사.

24) 『中宗實錄』 中宗 11년(1516) 7월 3일 3번째 기사; 중종 25년(1530) 3월 10일 1번째 기사.

25) 『宣祖實錄』 宣祖 20년(1587) 3월 2일 1번째 기사; 11월 6일(신묘) 2번째 기사.

26) 李舜臣, 『李忠武公全書』 권1, 「答陳都督[璘]書[見青山島陳都督碑文]」, "吾忠不及於武侯, 德不及於武侯, 才不及於武侯. 此三件事, 皆不及於武侯, 而雖用武侯之法, 天何應哉!" 附原書: "吾夜觀乾象, 晝察人事, 東方將星將病矣. 公之禍不遠矣, 公豈不知耶? 何不用武侯之禳法乎?"

있던 「陳都督碑文」에서 취한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비석이 전하지 않아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다음날, 과연 큰 별이 바다에 떨어지는 기이한 징조가 있었다.”는 각주가 부기되어 있으니, 이순신이 세상을 떠난 露梁海戰을 앞두고 주고받은 편지가 분명하다.[27]

이 비문의 내용은 이순신과 진린이 주고받은 편지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많은 시사점을 담고 있다. 우선 「진도독비문」이 청산도에 건립된 이유부터 보자면, 이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과 진린의 군대가 청산도에 주둔했던 데에서 비롯된다.[28] 다음 장에서 다시 기술하겠지만 사람들이 없는 무인도에 비석을 세울리 만무하니 이미 많은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또한 일본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진린의 공을 기리기에 청산도를 가장 적합한 곳으로 점지한 결과가 나타난다. 청산도는 조선 전기부터 왜구의 침입으로 화두가 되었던 섬이었기에 왜적을 물리친 군대와 결부된 청산도가 지닌 상징성은 굳이 부연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하겠다.

임진왜란 이후 청산도 방비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李恒福(1556~1618)은 전란 이후 왜적에 대한 방비책을 진달하며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렸다.

> 왜구가 침입해오는 길은, 五島에서 동남풍을 타고 三島에 이르러 留宿한 뒤 선산도를 지나 곧장 古今島와 加里浦 등에 도달하는 길과, 대마도에서 동북풍을 타고 蓮花島・浴知島 사이에 이르러 유숙한 뒤 곧장 南海의 彌助項・防踏 등에 도달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는 왜적이 전라도를 침입하는 익숙한 길이지만 그 사이의 水路가 몹시 요원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좋은 바람을 만나더라도 모두 아침에 출발해 저녁에 도착할 수 없기에 반드시 바다 가운데 있는 도서들 사이에서 유숙해야 합니다.[29]

이항복이 상소한 내용으로 왜구가 우리나라에 침략해오는 경로를 분석한 내용이

---

27) 李舜臣, 『李忠武公全書』 권1, 「答陳都督[璘]書[見靑山島陳都督碑文]」, “翌日, 果有大星墜海之異.”

28) 『肅宗實錄』 肅宗 7년(1681) 1월 3일 2번째 기사.

29) 『선조실록』 선조 33년(1600) 1월 28일 3번째 기사: 其入寇之路, 自五島得東南風, 至三島經宿, 過仙山島, 直抵古今島・加里浦等處, 自對馬島得東北風, 至蓮花・浴知兩島之間經宿, 直抵南海彌助項・防踏等處. 此其賊倭入寇全羅之熟路, 而其間水路懸遠, 雖得便風, 俱不能朝發而夕至, 必須經宿於洋中島嶼之間.

다. 조선 전기부터 청산도에 왜구가 나타난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다. 왜적은 본토의 곡창지대 등을 약탈하고자 우리나라를 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로가 멀어 그들이 원하는 곳에 한 번에 다다를 수 없었다. 결국 침략하는 과정에서 청산도와 같은 섬에 머물러 쉬었고 이는 소란을 일으키게 된 빌미가 되었다.[30]

임진왜란을 겪고 극도로 민감해진 조선에서는 이항복의 주장을 간과하지 않았다. 상소가 나오자마자 全羅右道水軍節度使로 있던 金億秋는 과거 왜적들이 조선 전기부터 이곳 섬들을 중심으로 거듭 문제를 일으키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상의 섬들을 경유하여 침략한 일을 들어 玄字銃筒의 보급을 요청했다.[31] 이항복의 상소가 근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후에도 이 상소는 왜구에 대한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회자되었다. 正祖 대 유생 조익이란 인물이 이를 바탕삼아 국방의 대책을 주장했거니와, 현전하는 여러 기록에서 시기마다 거론되는 이항복의 주장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32]

이와 같은 논의는 결국 청산진이 설치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이후 청산진은 남해 관방의 중요한 요충지로 거론되며 조정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무엇보다도 屯田의 소출에 대한 절수의 문제가 눈에 들어오지만,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면 청산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지였음이 분명하다. 해로의 흐름으로 인해 청나라 사람들이 표류해 청산도에 도착했다는 기사가 보이는데, 이는 청산도가 남해의 관문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한다.[33] 물론 주변 섬들과의 관계에 의한 전략적 위치의 변화로 그 위상은 부침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구한말 청산도에 출몰한 異樣船의 존재를 보고한 기사 등이 전함을 볼 때 그 기능은 한결같이 유지되었음이 분명하다.[34]

---

30) 선행 연구에서 이항복의 상소를 바탕으로 왜구의 침입 경로를 간략하게 정리한 연구성과가 있다(김경옥, 앞의 2007 논문 참조).

31) 『선조실록』 선조 33년(1600) 4월 4일 4번째 기사.

32) 『正祖實錄』 正祖 9년(1785) 7월 26일 2번째 기사; 李瀷, 『星湖僿說』 권14, 「倭寇始末」; 『萬機要覽』 軍政篇4 海防, 「日本相通海路」; 李肯翊, 『燃藜室記述別集』 권18, 「西邊」; 李裕元, 『林下筆記』 권10, 「備邊」 등 참조.

33) 『日省錄』 純祖 1년(1801) 2월 8일 9번째 기사.

34) 『各司謄錄』 統制營啓錄 고종(高宗) 8년(1871) 「3월 21일 승정원개탁」; 「9월 15일 승정원개탁」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김경옥(2017), 앞의 글에서 자세하게 논의된 적이 있다.

『1872지방지도』 중 「청산진지도」(규1051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9세기 청산진이 설치된 청산도 일대를 그린 지도이다. 지금의 완도군 청산면 읍리와 당락리(당리) 일대에 있었던 청산진의 모습이 명확하다. 이는 청산도의 구들장논이 처음 경영된 위치로 추정된다.

Ⅳ. 구들장논의 기원과 둔전의 기록

구들장논은 청산도의 대표적인 농업 유산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도적 특징 등을 언급한 특정한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구들장논이 의도적인 계획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청산도의 자연 조건에서 비롯된 문화유산이란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따라서 그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현전하는 사료의 해석을 통해 구들장논의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여러 가지 역사적 가능성을 추론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 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구들장논 관련 사항은 모두 세 가지이다. 하나는 구들장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는 문제이다. 청산도 농경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여

구들장논의 최초 경영 시점을 고찰한다. 다음은 구들장논의 소출에 대한 문제이다. 구들장논의 소출이 활용된 실상을 파악해 농사의 환경을 추정한다. 마지막은 구들장논 산출의 관리에 대한 문제이다. 구들장논에서 거둔 소출을 청산도 내에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한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들장논의 시작은 언제일까.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청산도의 역사는 대략 조선 전기 공도정책의 실시로 거주가 중단되었다가 임진왜란 이후 사람들이 입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가장 일반적이다. 공도정책이 실현된 근거는 세종대의 기사에 근거한 것인데, 사실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35] 세종이 공도정책 시행을 허락한 것은 맞지만 그 대상지 가운데 청산도가 정확하게 명시된 것은 아니다. 아울러 조선 시대 전시기에 걸쳐 국왕의 윤허에도 시행 여부가 거듭 논의된 사안도 한둘에 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청산도의 공도정책이 과연 울릉도 등의 사례와 같이 면밀하게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사의 기록만으로 확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공도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사는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 戶曹判書 閔維重이 다음과 같이 상소했다. "…… 호남의 강진에는 古今·靑山의 두 섬이 있는데, 양향청에서 둔전을 설치한 지 오래라 토지는 비옥하고 백성은 많습니다. 그 요해처로 말하자면, 唐將 진린과 통제사 이순신이 유둔했던 곳입니다. 고금도는 땅이 크지만 청산도는 다소 작으니 고금도는 첨사를 설치하기 마땅하고 청산도는 만호를 설치하기에 마땅합니다. 진을 설치한 뒤에 각 고을의 전선을 2척씩 옮기고 노를 젓고 포를 쏘는 군사는 모두 섬의 백성들로 충당하십시오. 모두 격포에서 전선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하면, 그 바다의 방비는 가장 확실하게 되고 조정에서도 또한 수군을 나누어주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36]

---

35) 『세종실록』 세종 31년(1449) 11월 24일 1번째 기사. 이는 이해준·김경옥(1991)과 김경옥(2007)에서 거론된 적이 있다. 그러나 청산도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불확실성을 보이며, 만약 이때 공도정책이 적극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로 성종 및 중종 대에 확인되는 왜구의 침략 사건과 일부 착종이 일어난다.

36) 『승정원일기』 숙종 7년(1681) 1월 3일 16번째 기사: 兵曹判書閔維重所啓: "…… 湖南康津地, 有古今·靑山二島, 糧餉廳設屯已久, 土地膏沃, 居民衆多. 以其要害言之, 唐將陳璘, 統制使李舜臣留陣

숙종 대 閔維重이 상소한 내용의 일부이다. 청산진의 설치를 건의하면서 임진왜란 당시 청산도의 상황을 간략하게 언급했다. 古今島와 청산도의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이 많음을 언급하며 이순신과 진린이 군사를 머물렀다는 기록을 덧붙였다. 당시 이들이 군사를 머물렀던 이유는 당연 군대의 식량을 넉넉하게 조달하고 병력의 주둔이 편리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는 시기상 16세기 후반에 해당하니 만약 이전 시기 공도정책이 시행되었다면 이처럼 많은 백성들이 짧은 시간 동안 청산도로 들어가 정착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결국 청산도에는 적극적인 공도정책이 시행되지 않았고 백성들은 적어도 고려 시대부터 꾸준하게 거주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그렇다면 청산도의 농경은 최소 지금에서 1,000년 이전부터 꾸준히 지속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고 농작물의 재배를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만 한다. 앞서 2장과 3장에서 살펴본 자료를 토대로 보면, 최사겸이 유배된 기록, 혜일이 사찰을 경영한 사실, 조선 전기 봉졸이 붙잡힌 기록,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과 진린이 군대를 머물고 이후 진린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진 사실들은 청산도에 꾸준히 백성들이 거주하고 농경이 행해졌음을 증언한다. 여기서 가장 먼저 경영된 위치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문화사적으로 청산도에 정착한 과정을 돌아보면 청산진이 설치되었던 읍리와 당락리(당리) 일대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된다. 배로 육지와 가장 편하게 왕래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며 청산진이 설치된 가장 요해처에 해당한다.[37]

둘째, 조선 시대 구들장논의 소출은 얼마나 되었을까? 이는 과거에 존재했던 구들장논의 규모를 대략이나마 파악함과 동시에 청산도의 농사 환경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구들장논의 소출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정사에 여럿 보이는데, 바로 청산도의 둔전에 대한 기록이다. 둔전이란 조선 시대 군량 등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토지로 청산도의 토지는 모두 둔전의 형태로 국가에서 관리되었다. 처음에는 訓鍊都監

之所也. 古今島地大, 而靑山島差小, 古今島宜設僉使, 靑山島宜設萬戶, 設陣之後, 以各邑戰船二隻移給, 而能櫓射砲手, 皆以島中居民充定, 一如格浦戰船之爲, 則其於海防, 最爲着實, 而朝家亦無劃給水軍之弊矣.

37) 선행 연구에서도 읍리 일대를 "조선 후기 청산진이 설치된 곳으로 가장 먼저 인구가 유입되고 정착한 곳으로 판단하여" 시료 채취를 진행한 적이 있다(신재열 · 김세호 · 홍영민 · 홍성찬, 앞의 2020 논문).

소속의 재정 관서인 糧餉廳에 여분의 소출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지만, 청산진이 설치되고 많은 군량이 필요해지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다음의 기사는 청산도 둔전을 절수할 기관에 대한 논란의 시작을 보여준다.

> 行戶曹判書 趙泰耉의 상소는 다음과 같다. "糧餉廳의 형세가 근래 죄다 퇴락함이 심하여 訓局 시위군의 기계 · 복색 · 갑포장 등의 물건 및 도감의 각색에는 물건을 대어줄 게 허다하나 지급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둔전이 많아 매년 수입이 적지 않았고 또한 군포를 징수하여 각 기관의 물품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산도 · 고금도 · 鳥島 등의 둔전은 진을 설치하면서 유실되었고, 김해 · 연안 등의 둔전은 또한 궁가의 절수로 들어갔습니다. 군대를 모집하는 일은 全羅道巡撫使의 서계 및 비변사 양역의 변통에 따라 모든 본청의 물력을 혁파하십시오. 물품이 모자란 가운데 해마다 흉년이 계속되어 세입이 급속히 줄어들어 한해의 필요물품을 지탱할 수 없으니 진실로 몹시 염려스럽습니다."[38]

숙종 대 趙泰耉가 糧餉廳의 재정문제에 대해 올린 상소의 일부이다. 양향청의 수입을 지탱하던 둔전이 감소하면서 비용의 부족해진 문제를 보고하고 있다. 조태구가 문제로 삼은 둔전은 청산도를 비롯하여 고금도와 鳥島의 둔전이다. 모두 양향청에 일부를 절수하여 납품했던 모양인데 진을 설치하면서 둔전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청산진의 경우에만 비추어 보자면, 이는 청산진이 설치되고 둔전의 많은 예산이 청산도로 귀속되면서 결국 양향청에 절수할 비용이 줄어든 결과라 볼 수 있다.[39]

---

38) 『승정원일기』 숙종 40년(1714) 8월 20일자 19번째 기사" 行戶曹判書趙泰耉所啓: "糧餉廳形勢, 近甚蕩殘, 訓局侍衛軍中, 器械 · 服色 · 甲布帳等物, 及都監各色, 許多責應, 無以爲之. 在前則屯田既多, 每歲所入不少, 且有募軍布, 以補各項支用矣. 靑山島 · 古今島 · 鳥島等屯田, 以設鎭而見失, 金海 · 延安等屯田, 又入於宮家折受, 而募軍則因全羅道巡撫使書啓, 及備局良役變通, 竝皆革罷本廳物力, 不成貌樣之中, 連歲災荒, 稅入絕少, 不能支一年需用, 誠甚可悶矣.(하략)"

39) 여기서 진의 설치로 둔전이 유실되었다는 구절은 의미가 자세하지 않다. 문맥상 농경지를 진으로 바꾸면서 논답이 유실되었다는 내용처럼 읽히지만 다른 기사를 보면 그 소출이 청산진 예산에 충당되며 양향청의 할당량이 줄어들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여기서는 후자의 사례가 좀 더 가깝다고 보았다.

청산진을 폐지할 수 없었기에 이때의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청산도의 둔전이 확장되면서 이 문제는 거듭 조정의 논의에 오르내렸다. 이는 많은 소출의 처분에 따른 논의의 결과이다. 처음에는 기존에 양향청에 공급하지 못한 예산을 보충하고자 훈련도감으로 귀속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薪智鎭의 필요성으로 인해 다시 훈련도감에 납부되는 소출은 줄어들었다.[40] 이러한 청산도의 둔전은 다시 金海의 大山屯 둔전과 교체되고 마침내 延齡君房에 귀속된다. 연령군은 숙종의 여섯째 아들로 禛嬪朴氏의 소생이다. 청산도 둔전의 잉여 소출은 이후 구한말까지 연령군방에 절수되는데, 고종 대 연령군의 후손 李載元은 해마다 받는 세금이 正穀으로 6~700포가 넘는다고 하였다. 이는 청산진 등의 운영비를 제외하고 남은 잉여로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이때 이재원은 자신이 받는 모든 세출을 국가에 바칠 것을 상소했고 결국 청산도 둔전의 소출은 모두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41] 오늘날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구들장논이 물의 부족을 극복하고자 생성된 제도라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소출을 관리할 만큼 수확량을 중시했던 역사를 보면, 모든 청산도의 구들장논이 이처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자 설립되었다는 주장은 다소 의문이다. 그 제도는 군대의 병사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그렇다면 구들장논의 소출은 어떻게 관리되었을까. 여기서 말하는 구들장논의 소출이란 둔전의 잉여물을 말하고 관리라는 것은 세금으로 납부할 곡물의 보관방법 등과 관련된 사항을 가리킨다. 앞선 내용들을 보면 청산도 둔전의 소출은 대단히 많았고 조정에서도 항시 논의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4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청산도의 구들장논에 대한 연구는 청산도라는 도서의 특징적인 농업 유산으로만 언급되고 있다. 만약 위와 같이 국가적으로 청산도 둔전의 소출을 중시했다면

---

40) 『승정원일기』 景宗 2년(1722) 2월 5일 21번째 기사. 청산도 둔전의 소출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청산진의 경영이 안정되면서 둔전이 확장된 결과로 추정된다. 이때는 기존의 훈련도감으로 지급을 되돌리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41) 『승정원일기』 고종 3년(1866) 8월 7일 17번째 기사; 8월 9일 5번째 기사. 다만 1895년(고종 32)에 발간된 『湖南鎭誌』에는 여전히 연령군방 소속의 전답이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이속 과정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42) 조정에서 논의한 내용 가운데에는 청산도의 농사 형편을 진달한 기사도 확인된다. 봄날 모내기철 강우량에 따라 농경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논의한 것들이다(『각사등록』 호남계록 고종 16년(1879), 「5월 18일 승정원개탁」; 6월 18일 승정원개탁」). 당시 지방관이 날씨에 따른 농사를 중시했던 사례를 돌아보면 청산도의 구들장논이 지닌 중요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왜 청산도 내에 구들장논과 관련된 역사적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일까.[43] 이에 대한 원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상의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하자면, 구들장논의 잉여물은 곧장 세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기사에서 그 단서를 유추할 수 있다.

> 하나, 珍島郡 鳥島面은 바다 한가운데 위치해 뱃길로 백여 리 되는 곳이지만 바닷길이 몹시 험하고 바람을 기다려 왕래합니다. 그리하여 고을 사또가 된 자가 일찍이 한 번도 이른 적이 없습니다. 섬에 본군의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의 버려진 것과 동등합니다. 일체 監色에게 위임하니 더러운 사또 가운데 고을 창고에 손을 대는 자나 부패한 아전 가운데 갖추어 바칠 계책이 없는 자들이 번번이 이 창고로 옮겨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이른바 穀簿(곡식 출납 장부)라는 것이 허황되고 형편없어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연해의 여러 섬들 가운데 鎭將이 있는 곳 이외에는 비록 멀고 크더라도 영암의 楸子島와 甫吉島・강진의 청산도・흥양의 삼도와 같은 곳은 일찍이 창고를 설치한 적이 없는데 유독 이 섬에만 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겨났으니 계속 허술하게 보관하여 도둑질하는 요행의 구멍을 열어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44]

정조 대 湖南慰諭使로 파견된 徐榮輔가 올린 별단의 하나이다. 진도군에 속한 조도라는 섬의 창고 관리 문제를 전달하고 있다. 조도는 지금의 진도군 동남쪽에 위치한 상조도와 하조도를 말하는데 이곳에 창고가 있지만 뱃길이 험해 관리들이 다녀오지 않아 창고의 폐해가 극심한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이때 서영보는 다른 도서 지역에는 창고가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곳의 창고 역시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청산도 역시 육지와 멀리 떨어진 큰 섬이지만 창고가 설치된 적이 없음을 언급했다.

---

43) 오늘날 청산면 도청리와 관련하여 "조선 시대 祖稅를 받던 기관인 國稅米都奉廳이 설치되면서 都廳里라 불려오다가 都奉廳이 폐지되면서 道淸里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설명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두산백과』, 「도청리」 참조). 여기서 말하는 국세미도봉청이 무엇인지 자세하지 않지만 창고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문헌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자료의 발굴을 기다린다.

44) 『정조실록』 정조 18년(1794) 12월 25일 3번째 기사: 一, 珍島郡 鳥島面處在絕洋, 船路百餘里地, 而洋路甚險, 候風往來, 故爲邑倅者, 未嘗一到. 島有本郡一倉, 而殆同等棄, 一委監色, 墨倅之犯手邑倉者, 逋吏之無計備納者, 輒移錄於此倉, 故所謂穀簿, 無非虛留麤劣, 誠極切痛. 沿海諸島之有鎭將處外, 雖遠且大, 如靈巖之楸子・甫吉・康津之靑山・興陽之三島, 未嘗設倉, 而獨此島有之. 到今法久弊生, 不可一向慢藏, 以啓誨盜之倖竇.

기존 연구에서는 청산도 구들장논을 개인 단위의 농작 형태로 분석해 왔다. 읍리와 다소 동떨어진 부흥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다 보니, 청산도의 논밭이 지닌 국가적인 관심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아니면 청산도 내에 구들장논과 관련한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상의 기사에서 청산도에 창고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기록은 청산도 둔전의 소출이 잉여가 발생하는 대로 즉시 육지로 이송되었음을 말한다.[45] 따라서 청산도 구들장논을 개인 단위로 경작된 농토의 형태로 규정하기에는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46]

다만 이상의 논의는 청산도 내 읍리 일대의 논답이 구들장논의 일종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되었다. 이는 최근 구들장논의 범주에 읍리 일대의 구들장논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한 사례를 준용한 결과이다. 선행 연구에서, 구들장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통수로와 둠벙 등의 분포양상을 조사하였는데, 통수로와 둠벙 모두 읍리의 구들장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하였다.[47] 그러나 오늘날 청산도에서 운영되는 청산도구들장논보존협의회에 따르면, 최초 구들장논 연구가 진행된 부흥리 · 양지리 · 상서리 일대를 구들장논으로 소개한 반면, 읍리 일대의 논은 구들장논으로 인식하지 않는 듯하다.[48] 이와 관련하여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

45) 청산도에 창고가 없었다고 하여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종 대 片致云과 延文成이란 자에 의해 대동미가 횡령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강진현감을 지내던 李建九가 대동미를 실어 이들에게 서울로 보내도록 하였으나 반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바닷가 여러 곳을 추적하여 끝내 청산도에서 둘을 찾아낸 사건이다. 결국 이들은 효수형에 처해지며 후대에 경계가 되었다(『승정원일기』 고종 17년(1880) 10월 18일 10번째 기사).

46) 청산도 구들장논이 척박한 자연환경에 맞서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있지만, 이상과 같이 둔전 관련 내용이 조정에 거듭 보고된 경우를 보면, 오히려 국가에서 개간하고 관리하며 중시했던 경작지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7) 신재열 · 김장수 · 고병천 · 홍영민, 「청산도 구들장논의 수원 및 수리 체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6(2), 한국지역지리학회, 2020.

48) 세계중요농업유산 청산도 구들장논(http://gudeuljangnon.co.kr/) 참조.

Ⅴ. 결론

청산도는 고려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였고 조선 시대에는 청산진의 설치로 조정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중요한 섬이었다. 그러나 문화사적으로는 참조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기에 현전하는 사료들을 토대로 그 역사와 함께 농경이 행해진 사실에 의거하여 구들장논의 역사를 고찰하였다. 물론 이상의 주장에는 새로운 연구성과를 수용하면서 기존의 시각과 일부 전제를 달리한 측면이 있다. 우선 이전까지 주로 구들장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던 읍리와 당락리 일대의 논밭을 구들장논의 일부로 보았고, 둔전의 기록을 구들장논과 관련된 자료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공자들의 고견을 기다린다.

이상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산도는 고려 시대부터 백성들이 거주한 이래 공도가 되지 않고 꾸준히 삶을 영위했던 공간으로 추정된다. 물론 사람이 살았기에 농경은 계속되었고 구들장논의 기원 역시 고려 시대까지 소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역사적 기원을 지닌 구들장논은 읍리와 당락리 일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그 소출은 국가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으니 모든 구들장논이 척박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농업유산이 아닐 수 있음을 증언한다.

최근 청산도 읍리 일대의 구들장논에서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광여기 루미네선스 연대 측정법이 시행되었다. 이 기술은 시료가 매몰된 이후의 시간(퇴적 시기 또는 퇴적 기간)을 추정할 수 있는 절대 연대 측정 방법이다. 읍리 구들장논의 시료를 채취한 결과, 구들장논 조성과정에서 석재와 함께 잡석으로 활용되다가 매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편이 발견되었고, 분석 결과 약 700년 전에 매몰된 것으로 판명되었다.[49] 이는 시기상 임진왜란 이전부터 이미 구들장논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현전하는 사료를 통해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거칠게 남아 전하는 역사의 기록들이 과학적 연구 방법과 만나 더욱 정확하고 면밀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

투고일: 2020.07.20	심사일: 2020.09.02	게재확정일: 2020.09.07

49) 신재열 · 김세호 · 홍영민 · 홍성찬, 「청산도 구들장논의 최초 조성 시기에 관한 연대 분석 결과 및 사료적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6(2), 2019.

참고문헌

김경옥,「朝鮮後期 靑山島鎭의 設置와 財政構造」,『역사학연구』22, 호남사학회, 2004

김경옥,「朝鮮後期 靑山島 주민들의 入島와 水軍鎭의 설치」,『한국도서연구』19(2), 한국도서학회, 2007

김경옥,「18세기 장한철의 『표해록』을 통해 본 해외체험」,『역사학연구』48, 호남사학회, 2012

김경옥,「19세기 말엽 청산도진의 재편과 해양방어체제의 변화」,『지방사와지방문화』20(2), 역사문화학회, 2017

김재호,「청산도 구들장논의 전통 수리 양상과 농경문화 특징」,『남도민속연구』29, 남도민속학회, 2014

김정호,「완도군 청산도의 역사와 지명」, 한국도서연구 19(2), 2007

신재열 · 김세호 · 홍영민 · 홍성찬,「청산도 구들장논의 최초 조성 시기에 관한 연대 분석 결과 및 史料와의 대비」,『한국지역지리학회지』26(2), 한국지역지리학회, 2020

신재열 · 김장수 · 고병천 · 홍영민,「청산도 구들장논의 수원 및 수리 체계」,『한국지역지리학회지』26(2), 한국지역지리학회, 2020

이종묵 · 안대회,『절해고도에 위리안치하라』, 북스코프, 2011

이해준 · 김경옥,「청산도의 역사 · 문화적 배경」,『도서문화』9, 도서문화, 1991

임근욱,「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의 농업관광에 대한 연구」,『한국사진지리학회지』25(2), 한국사진지리학회, 2015

조경만,「청산도의 농업환경과 문화적 적응에 관한 일고찰: 부흥리 일대 수도작의 전통적 방식을 대상으로」,『도서문화』9, 도서문화, 1991

The history of Cheongsan-do and the management of Gudeulijang paddy field

Kim, Se-ho

Gudeuljang paddy field in Cheongsan-do(青山島) is known as Korean representative agricultural heritage, but its historical basis and origins of management have not yet been revealed. This article intended to reexamine the history of Cheongsan-do and trace the origins of management of Gudeuljang paddy field by the relevant literature records. The previous study supposed that, people started to reside in Cheongsan-do in the late Chosŏn Dynasty after the end of the policy of emptying islands, and Gudeuljang paddy field was also started around this time. However, Cheongsan-do is the place that the people had continuously lived since Goryeo dynasty, and it is assumed that the agriculture in this place had been started from at least 1,000 years before. The beginning of this is highly likely to be around Eup-ri and Dangnak-ri (Dang-ri), which are thought as the first places where the population entered and settled. With the installation of Cheongsanjin(青山鎭) in the late Chosŏn Dynasty, Gudeuljang paddy field was managed in form of a garrison farm(屯田), and the surplus of this garrison farm seemed to be paid directly by tax, producing considerable yield. The agricultural situation of Cheongsan-do was always subject of discussion in the royal court, and this is giving testimony of the long history of Gudeuljang paddy field in Cheongsan-do.

Key Words : Cheongsanjin(青山鎭), a garrison farm(屯田), the period of initial construction, starting to reside in Cheongsan-do(青山島), the policy of emptying islands